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025년 7월 10일(목)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신기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288장 다 함 께
 기 도 이형수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베드로후서 3:8~13 인 도 자
 찬 송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새벽찬양대
 설 교 『반의 반의 은혜』 이신기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176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베드로후서 3:8~13 >

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참고구절 <마태복음 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2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3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4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후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 담당

7/8(화)	7/9(수)	7/10(목)	7/11(금)	7/12(토)	7/14(월)
이철용 안수집사	구성수 안수집사	이형수 안수집사	권인영 안수집사	전종우 안수집사	김근홍 재적안수집사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5년 7월 10일(목)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반의 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날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새문안교회가 세상의 불의와 고통에 눈감지 않고, 진리와 사랑으로 약한 자를 돌보며, 소외된 이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병가 중이신 담임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쉼의 시간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피택자 교육을 통해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연로하신 어르신들께는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 여름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며,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념과 세대, 남녀와 지역으로 나뉜 이 나라와 민족을 공활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국민을 바르게 이끌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